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1906년에 영국의 서부 우시장에서 많은 상금을 걸고 소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뽀무게 맞추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787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는 몇몇 소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정확한 무게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787명이 적어낸 값을 평균해 본 결과 소수 전문가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실재에 가까웠다고 한다. 이는 소수의 엘리트 보다 평범한 다수의 지식이 모인 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것을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표현하였다.

더욱이 요즘은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 전체가 엘리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대중의 수준 높은 지식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그 자체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닐 수 있는데 이것이 요즘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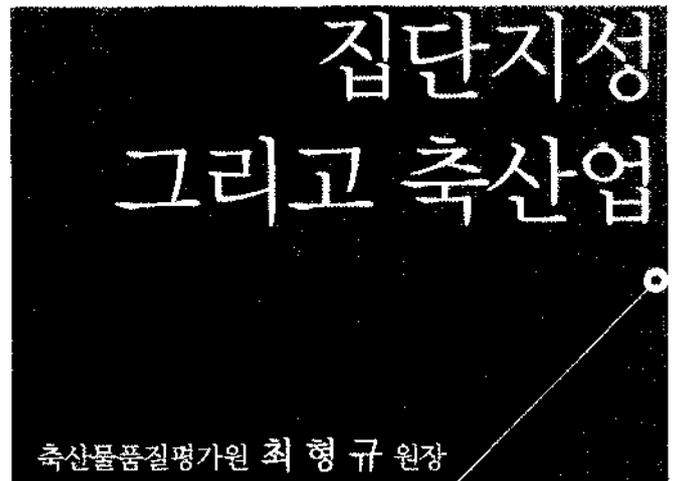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 집단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이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언제든지 업데이트,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장 최신의 지식 정보를 담은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를 대표하는 종이 백과사전 브리태니커와 비교해 보면 브리태니커 2010년판에는 총 13만개의 항목이 들어 있는데 위키피디아에는 1천600만개의 항목이 들어 있다. 직원 숫자를 보면 위키피디아는 20여명에 불과한 반면 브리태니커는 수백명에 이

른다. 위키피디아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할 수도 있으나 항복당 브리태니커 사전의 오류율이 3개 정도인데 위키피디아는 4개 정도 된다고 한다.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사용자 100만명 중에서 약 10만명 정도가 1인당 10개 이상의 항목에 참여하고 있으며 5천여명으로 이뤄진 일성분자 그룹이 자발적으로 위키피디아를 작성하고 편집하며 거의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위키피디아 생산에 참여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키피디아의 설립자 지미 웨일스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열정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분야를 좀 더 알리고 싶어 한다며 이 작업이 재미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키피디아는 웹 2.0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개방·참여·공유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키노믹스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다. 웹 2.0은 자체적으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자기검정 과정, 즉 사회적 정화(Social Filtering) 기능이 수반되어 공신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기업들도 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라고 한다. 즉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하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집단지성의 활용에는 파괴적이어서는 안 되고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따르는데 이는 집단지성이라는 명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래부터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는데 이는 대다수가 맞다라는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 젊은이들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저하, 즉 지식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에서 무슨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재기 바람이 불고 영화의 경우 남들이 모두 감동적이라고 하니 그 영화를 보러가고 같은 장면에서 감동하고 만족을 얻는



것이다. 혹자는 최근 각 TV 방송국들이 앞 다투어 퀴즈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만 양산해 시청자에게 생각할 계기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국가별 집단지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집단 IQ라고 한다면 21세기의 승자는 집단 IQ가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축산업은 경종농업에 비해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젊고 규모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어 기술발전이나 외부환경을 받아들이는 흡수능력이 빠르다.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현재 40%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축산물이다. 우리 축산업도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우리 축산업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개방의 충격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집단지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기업 CEO인 축산농가를 비롯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용기,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집념 등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집단지성의 수준을 어떻게 높여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